



미 증시, 인프라투자 기대감, 인플레 경계감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10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미 상원의 1 조달러 규모 인프라투자 통과 소식으로 경기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11 일(수)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 심화 속 델타 변이 확산, 업황 둔화 전망에 따른 반도체주 약세 등으로 혼조세 마감(다우 +0.5%, S&P500 +0.1%, 나스닥 -0.5%). 업종별로는 에너지(+1.7%), 소재(+1.5%), 산업재(+1.0%) 등이 강세, 부동산(-1.1%), 기술(-0.7%), 헬스케어(-0.2%)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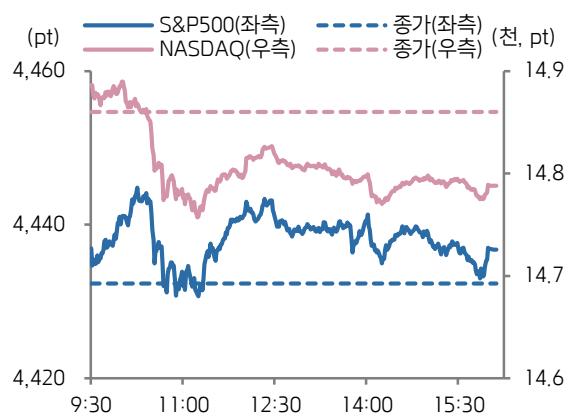
미 상원에서는 5,500 억달러 신규자금이 포함된 1 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안을 가결. 해당 안에는 도로 및 교량(1,100억다ollar), 철도(660억달러), 대중교통(390억달러), 전기차(150억달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여전히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내 진보성향 위원들이 3.5 조달러 복지법안까지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인프라투자안을 보류시킬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상원에서 통과한 1 조달러 해당 안건의 하원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

미국 증시 평가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에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수시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 미국의 경우 7 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12.4 만명을 기록하는 등 백신접종 확대에도 좀처럼 델타 변이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나 현재 선진국들은 백신 부스터샷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악재로서 코ロ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기준의 당사 판단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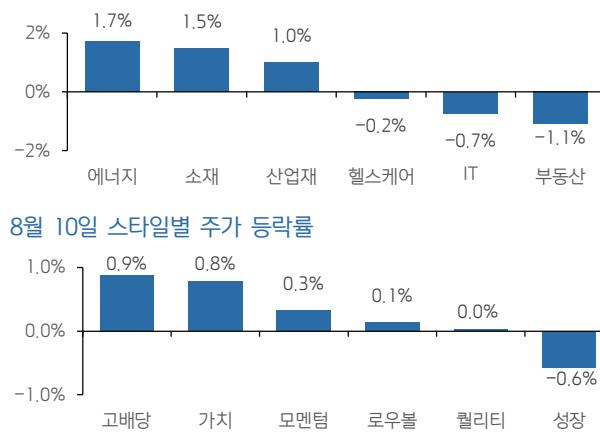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11 일(수)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난 5~6 월 두 달 동안 5%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 월에도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시장 컨센서스 5.2%). 8 월 이후 연준 내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금번 소비자물가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조기 테이퍼링 논란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격화되면서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유의.

S&P500&NASDAQ 일증 차트(8월 10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1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3.5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2. 국내 신규확진자 사상최고치 경신에 따른 코로나 수혜주, 피해주 주가 변화
3. 미국 반도체주 주가 급락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 위축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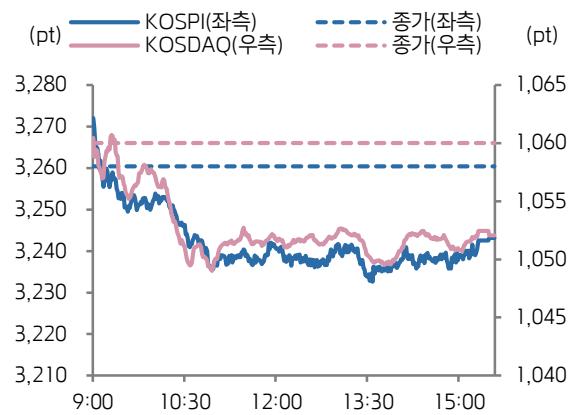
10 일(화) 코스피는 중국 내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일부 연준 위원들의 조기 테이퍼링 발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외사 리서치의 부정적인 반도체 업황 제시에 따른 대형 반도체주 약세, 카카오뱅크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등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0.5%, 코스닥 -0.8%). 업종별로는 의약품(+5.4%), 의료정밀(+4.3%), 증권(+0.2%) 등이 강세, 은행(-7.6%), 음식료(-1.9%), 금융(-1.5%)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377 억원, 3,833 억원 순매도, 개인이 1조 5,420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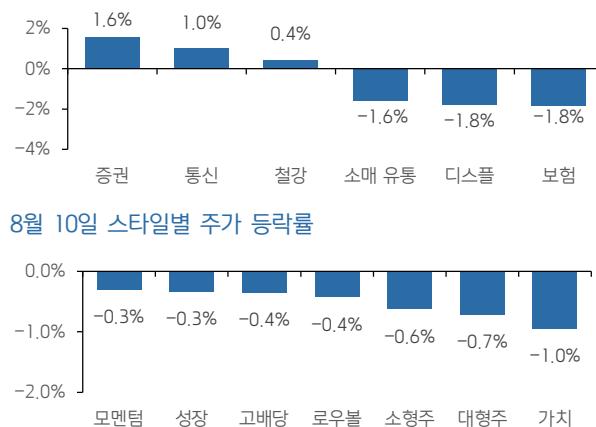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황 둔화 논란, 미국 소비자물가 경계심리 등 대내외 부담요인으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가격 하락 전망 등으로 마이크론테크놀러지(-5.4%) 포함 반도체주들이 부진했다는 점은 국내 대형 반도체주 투자심리에 단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다만 여전히 경기 정상화 기대감은 유효하고,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는 수개월 간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전거래일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 따른 국내 전반적인 증시 하락 충격은 제한적을 것으로 예상.

한편, 국내 신규확진자(10 일 기준)가 2,000 명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내수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국내에서도 코로나의 증시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금일 전반적인 증시 흐름은 8 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미국 소비자물가가 미국 장 시작 전에 발표되는 만큼, 지수 움직임은 부진한 가운데 업종 및 종목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월 10일)



8월 1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